



제181회

#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가로열쇠>

- 어떤 일이나 단체에서 으뜸인 사람. 그는 우리 모임의 ○○○○였다.
- 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
- 피곤할 때에 몸을 쭉 펴고 팔다리를 뻗는 일.
- 앉아서 미끄러져 내려오도록 비스듬하게 만든 어린이 놀이 기구.
- 놀이 도구의 하나. 정육면체 모양으로 만들며, 각 면에 하나에서 여섯까지의 점을 새긴 것이다. 이것을 던져서 위쪽에 나타난 점에 따라 이기고 지는 것을 결정한다.
- 자기의 처지나 생각을 곳곳이 지키고 내세우는 기질이 나 기풍. 자네처럼 ○○ 있는 사람까지 그 꾀에 빠지다.
- 제사를 지낼 때 쓰는 대추, 밤, 배, 감 따위의 과실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복숨이 위험할 정도의 큰 상처.
- 조선 말기에서 대한 제국까지의 시기.
- 궁중에서, 음식의 맛을 보는 일을 이르던 말.
- 노엽거나 분한 마음. 나는 끓어오르는 ○○를 꼭 참았다.
- 겉으로만 착한 체하는 사람.
- “?”의 이름.
- 바르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쏠리게. 줄을 ○○○ 서다.

### <세로열쇠>

-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법관.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을 집행한다.

-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 둘이 힘을 합치면 못 할 일이 뭐가 있겠니?”
- 머리카락을 한데 뭉친 끝. 아이가 제 언니의 ○○○○를 잡아당겼다.
- 고구려 제19대 왕. 이름은 담덕. 고국양왕의 태자로 18세에 왕위에 올랐다. 불교를 신봉하였고, 남북으로 영토를 크게 넓혀 만주와 한강 이북을 차지하는 등 고구려의 전성시대를 이룩하였다.
- 경기에서 소와 싸우는 사람. 붉은 천으로 소를 유인하고 교묘하게 몸을 비키면서 최후에 검은 소를 쫓는다.
-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말받침. 통일의 ○○을 마련하다.
- 어렵짐작으로 대충 하는 계산을 이르는 말. ○○○로 내린 결론.
- 어떤 물건을 속일 목적으로 꾸며 진짜처럼 만들. 신권은 ○○가 불가능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되었다.
- “이이”의 호.
- 자기가 하고도 아니한 체, 알고도 모르는 체하는 태도. “누구 앞에서 ○○○야?”
-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교통수단. ○○○ 좌석이 매진되다.
- 쉬지 아니하고 내쳐 걷는 걸음이나 움직임. ○○○에 달려가다.
- ‘남편’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털어 주거나 슬픔을 달래 줌.
- 여자기리의 동기. 언니와 여동생 사이를 이른다.

●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낱말퍼즐을 만들어 푸른신문으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께는 작은 선물을 우송해 드립니다.

▶ 보내실곳: 42640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11번지 (감삼동 68-4) 4층 푸른신문 편집부 앞  
E-mail:pr5726000@naver.com

→ 응모엽서에 성명과 우편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세요

▶ 정답자 발표: 1,329호



## 1,179회 퍼즐 상품 받으실 분

\*당첨상품은 우송해 드립니다.



이용권 2매 ☎1688-8511



권희수(달성군 다사읍)

홍희순(달서구 선원남로)

여상우(달서구 달구벌대로)



이용권 2매 ☎1688-8511

하정민(달서구 월배로)

박민철(달서구 이곡동로)

김준우(동구 동부로)

### <1,179회 정답>

소	속	왕	이	눈	치
풍	경	옛	골	목	길
거	짓	말	소	스	
망			입	꼬	리
윤	동	주	방	아	모
	름		아	모	르
살	금	살	금	르	노
볼		방	아	쇠	라
이	간	질	양	실	마
				리	

♣ 가족과 함께 풀어 보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본사 편집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월 30일(화)까지 도착된 엽서 중에서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당첨상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 푸른신문

www.prsinmun.co.kr

대표전화: (053) 572-6000 팩스: (053) 572-6006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23길 13(감삼동 3F)  
(우편번호: 42640)

▶ 등록일 2000년 10월 17일 ☑ 은행계좌안내  
▶ 등록번호 대구다 01130 SC 제일은행 556-20-270245  
▶ 간별 주간  
▶ 인쇄처 미디어프린팅넷(株) 예금주: 푸른신문(김현두)

▶ 발행인 김현두 \*구독료 1년 15,000원  
▶ 편집인 김현두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www.prsinmun.co.kr

# 푸른신문 구독신청 방법

- 구독료 : 1년 15,000원
- 입금계좌 : SC제일은행 556-20-270245 예금주:푸른신문(김현두)
- 전화 : (053) 572-6000 팩스 : (053) 572-6006

달서구·달성군 지역신문 '푸른신문'은 지역밀착형, 주민밀착형 지역신문으로서 지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중앙지나 지방 일간지에서 다루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의 훈훈하고 작은 이야기들 까지도 신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웃과 더불어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건전한 비판을 통해 지역문화를 창달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